

# 광주~장흥 직선화도로 '20년째 공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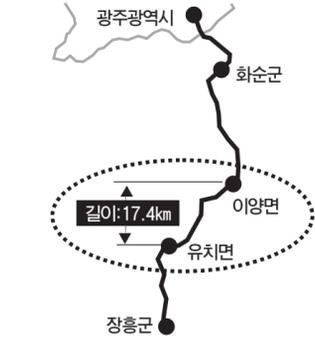
국도 29호선·지방도 839호선 연결도로 공정률 70%대 그쳐  
절끔 재정지원 탓 공사지연 따른 인근 주민들 고충 날로 커져



지난 9일 1개터널만 임시개통한 지방도 839호선 '곰치터널'. <장흥군 제공>

광주에서 장흥을 잇는 국도 29호선과 지방도 839호선에 대한 직선화도로가 20여 년째 이어지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장흥군 등에 따르면 전남도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화순이양 구간을 지나는 국도29호선에서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로 연결되는 지방도 839호선(17.43km)에 대해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20년이 지났어도 아직 70%대 공정에 머물러 있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방도 839호선은 당초 국도 29호선으로 유지돼 오다 지난 1987년에 국토부가 지방도로 격하시켜 관리해 왔다. 전남도가 밝힌 이 구간의 총 공사비는 총 2179억원이며, 그동안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반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협약, 보상단계 등의 절차가 무려 8년여 동안 진행되면서 지난 2006년 11월 뒤통을 긁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도로는 2012년 10월에 장흥 보림삼거리(피재)에서 장평 장항구간에 이르는 4.5km를 1차로 부분개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로 지난 2016년 5월에 화순 청풍면 이만리에서 청풍 신리에 이르는 6km 구간을 2차선으로 임시 개통했다. 이어 화순 '곰치터널' 구간(0.6km) 2개 터널 가운데 1개 터널만 이달 9일 임시개통한 상태다. 이처럼 도로가 당초 예상한 2013년 목표를 훨씬 넘기고 저조한 공정율을 보이는 데는 산악지대가 많아 공사비가 많이 드는 난공사업에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순수 지방비로 공사비를 충당하면서 일시에 공사비를 투자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도 29호선인 이양면 아문교차로로 접속되는 1.7km구간은 노선변경이 확정돼 기술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공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장흥간을 잇는 직선화도로 개설 공사가 지연되다보니 이에따른 고충은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실제로 국토건설부로부터 장흥과 서울을 오가는 직통고속버스노선은 받지 못하고 영암이나 보성 방면을 경유하는 직행고속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등 장흥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장흥군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순수 지방비로 단기간에 공사비를 투자 할수 없는 형편이 있는 만큼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지정해라 공정이 빨라질수 있다"며 "도 당국이 나서 도로관리를 개편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 유치 용문에서 화순 이양 품평리에 이르는 17.43km 지방도 839호선에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67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 강진군, 일자리·관광·군정 발전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

강진군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민선 7기 군정 역점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개 분야에 대해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을 공개 모집한다. 군의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모집분야는 '기업이 찾아오는 일자리 도시', '머물다 가는 체험형 관광도시', '민선7기 군정 운영

방향' 등 3개 분야다. 강진군 발전을 바라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채택 땀 50만~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상금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해당 부서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안서는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올리면 된다. 인터넷 제출시 제안서 작성 후 제출사이트에 첨부물로 제안서를 올리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강진군, 외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최근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3개국 여행사 대표단 30여명을 초청해 2박 3일 일정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다. <강진군 제공>

## 국향 가득한 영암으로 가을여행을... '월출산 국화축제' 26일 개막

내달 11일까지 기찬랜드 일원 전시·문화·체험 행사 등 다채  
하춘화·태진아 등 가수 초청도



'2018 월출산 국화축제'가 오는 26일부터 11월11일까지 17일간 월출산 기찬랜드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축제 모습. <영암군 제공>

영암군은 '2018 월출산 국화축제'가 오는 26일부터 11월11일까지 17일간 월출산 기찬랜드 일대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가을여행! 국화향기 가득한 영암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2018 영암방문의 해'와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전시행사와 문화행사, 경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판매행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시행사의 경우 기찬랜드에는 지난해에 비해 7만 여점이 늘어난 27종 24만 여점의 국화분화가 전시된다. 랜덤마크로 활용할 기찬랜드 상징 조형물과 풀장 내 직경 5m에 이르는 큰바위얼굴 등의 작품이 새로 선보이고, 표지석 앞에는 대형 왕인문이 설치돼 웅장한 자태를 뽐낸다. 주차장 내 체험존 주변에는 꽃벽과 꽃볼 조형물이 설치되고 가야금산조 기념관 입구와 정원에는 지난해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김창조 선생 흉상과 왕인박사상이 전시

된다. 또 공연장과 산책로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국화 포토존이 조성된다. 행사기간 주말에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오는 26일에는 MBC가요베스트 방송을 통해 하춘화, 태진아, 강남, 김범룡, 김용림, 진시몬, 이혜리 등 정상급 가수들의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행사기간 내내 진행되는 체험행사도 다양하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국화화분을 만들고 집으로 가져가 키우는 '화목국화

테이크 아웃', 국화동산 의상체험과 국화꽃 화관만들기 등 국화와 연관된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전통평 영암군수는 "2018 월출산 국화축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국화향기로 가득차게 될 월출산 기찬랜드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강진군, 숙박업소 등 66곳 공중위생서비스 등급 평가

강진군은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숙박업 32개소, 목욕업 9개소, 세탁업 25개소 등 총 66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 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반적 위생 관리 상태 및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평가, 등급을 매기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군에서 평가반을 구성, 각 업소를 방문해 평가표를 채점하는 현지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는 90점 이상 업소는 녹색(최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황색(우수), 70점 미만 업소는 백색(일반) 등 세 등급으로 구분돼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를 군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해 선택권을 부여하고, 업소간 자율적 서비스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군은 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해 연말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업소 로고(표지판)를 부착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 장흥군,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 1015억원 확보

장흥군은 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내년도 공모사업 등으로 1015억원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흥군이 확보한 내년도 예산사업은 모두 75건인데, 신규사업 28건(661억원)과 계속사업 47건(354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17억원) ▲안중군의사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70억원)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85억원) ▲정남진도요시장 시설현대화사업(4억원) 등이다.

또 ▲탐진강 수변 도널길 조성(14억원) ▲장평시장 시설현대화(12억원) ▲수산물산지가공시(15억원)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20억원) 로하스타운-산일단지 연결도로(18억) 등도 있다. 장흥군 장흥군수는 "이번에 군이 이례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모든 직원들이 하나 돼 관련 사업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영암군,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종이비행기 교실' 운영

영암군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종이비행기대회를 사전에 홍보하는 행사로 찾아가는 '종이비행기 교실'을 15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종이비행기교실은 광주-전남권 신청 학교 중 8개 학교를 선정하여 항공제전 주관사인 (사)대한민국항공회가 학교를 찾아가 80분간에 걸쳐 항공기제작 체험수업을 통해 비행기 구조와 비행원리 등을 즐겁게 배울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한

공분야에 관심을 갖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은 비행기교실을 통해 배운 비행원리를 활용하여 11월 3일부터 개최되는 항공제전장에서 종이비행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종이비행기대회는 초·중·고 학생부 개인전과 가족2명(성인1+학생1, 미취학아동포함)이 한 팀이 되어 참가하는 가족부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6834-7400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